

스티븐 헬러(Stephen Heller)의 작품을 활용한 피아노 테크닉 학습방법 -리듬과 발란스 중심으로-

임주희
서원대학교 실용음악과

Provide methods to improve the teaching of piano technique through the works of Stephen Heller. -By focusing on rhythm and balance-

Ju-Hee Lim

Department of Applied Music, Seowo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에서는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 스티븐 헬러(Stephen Heller)의 피아노 작품들을 활용해 리듬과 발란스를 중심으로 중급과정의 학습자들의 피아노 테크닉이 향상될 수 있는 연습방법 및 교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티븐 헬러는 낭만시대의 작곡가로 우리에게 비교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기초적인 피아노 테크닉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음악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작곡한 것을 알 수 있다. 헬러의 작품들은 대부분 피아노 연습곡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적이고 중급 또는 고급과정의 학습자들이 다루기에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다. 또한 그의 작품들은 음악적 표현력을 개발시키고 연주용 레퍼토리로 사용하기에 가치 있는 곡들로 낭만시대의 쇼팽, 리스트, 슈만 등과 같은 낭만시대 대작의 작품을 연주하기 전 단계에서 중급과정의 학습자들이 다루기에 효과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티븐 헬러의 피아노 작품들을 활용해 피아노 테크닉 향상과 음악성을 개발시키기 위한 연습방법을 리듬과 발란스 중심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피아노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수법적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자 한 논문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methods to improve the teaching of piano technique of intermediate-level learners through the works of Stephen Heller by focusing on rhythm and balance. Although a romantic-era composer, Stephen Heller's works are not well-known. However, when analyzing his compositions, many require the player to focus on their foundational piano techniques and musicality. Heller composed many interesting works including etudes that allow intermediate-level pianists to develop their musicality as much as those playing Chopin or Liszt from the same era. This study presents teaching methods for developing piano technique by focusing on rhythm and balance, and for enhancing musicality to improve the quality and significance of piano education and pedagogical research.

Keywords : Intermediate-level learners, Piano technique, Stephen Heller, Rhythm, Balance, Romantic-era composer

1. 서론

스티븐 헬러(Stephen Heller, 1814-1881)는 낭만시대의 작곡가로 피아노 작품을 많이 작곡하였으며, 동시에

에 그와 함께 활동한 작곡가로는 쇼팽과 슈만, 리스트 등이 있다. 헬러의 작품들은 중급 또는 고급과정의 피아노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용 작품들로 낭만시대의 대작들을 다루기 전 예비단계에서 기초테크닉을 다지고 음악

*Corresponding Author : Ju-Hee Lim(Seowon University)

Tel: +82-10-9152-8959 email: jeyce@naver.com

Received November 1, 2016

Revised November 7, 2016

Accepted December 8, 2016

Published December 31, 2016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작곡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당수의 피아노 교사들은 중급과정 학습자들의 피아노 테크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품으로 학습자들에게 체르니(C. Czerny), 하논(C. Hanon), 피쉬나(Pischna) 등과 같은 연습곡들을 많이 다루고, 이를 권장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작품들이 피아노 테크닉 향상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잘못 연습하면 음악적 표현은 없이 손가락만을 움직이기 쉽고 끝내는 피아노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손가락의 독립성, 고정 박, 리듬감을 발달시키고 터치에 따른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음악적 표현보다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손가락 연습에 가깝기 때문에 학습자는 음악적 흥미가 떨어지고 피아노 연습에 대한 싫증을 쉽게 느끼게 된다.

맥스 캠프(Max W. Camp)는 “중급 과정은 초급 과정에 비해 복잡해진 리듬, 화성 및 성부 진행, 아티큘레이션, 음색, 다이내믹 형태 등 음악적 요소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종합적 조절 능력을 훈련하는 기간이다. 동시에 각 시대의 다양한 스타일을 충분히 경험함으로써 고급단계 레퍼토리 진입에 무리가 없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다.”[1]라고 하였다. 특히 중급과정의 경우 흥미롭고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중급과정 학습자들을 위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정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급격히 높은 수준의 곡을 제시하거나 이미 많이 알려진 작품들을 다루게 하여 피아노에 대한 흥미를 잃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다니엘&보오텐(R. Daniel & J. Bowde)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피아노를 그만두는 시기가 중급과정의 시기이며 이는 충실하지 못한 교육과정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다.”[2]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중급과정의 피아노 교육은 테크닉뿐만 아니라 음악적 표현능력을 발달시키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다룸으로써 학습자가 음악적으로 성숙하고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급과정 학습자들이 연주용 레퍼토리로 사용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해 곡을 해석하는 능력과 작곡가의 작품에 대한 의도 등을 파악해 곡을 이해하고 깊이 있게 파악해 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곡가 스티븐 헬러(S. Heller)는 1813년 5월 1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난 유대인 혈통의 피아니스트

이며 작곡가이자 교사이다. 그는 9살에 스승 프란츠 브라우어(F. Bauer)와 함께 듀섹(J. L. Dussek)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토’로 첫 데뷔 무대를 갖는다. 헬러의 가정형편은 매우 어려웠지만 아버지의 도움으로 비엔나에 건너가 체르니(C. Czerny)에게 작곡과 연주를 배웠으며, 그의 스승 안톤 할름(A. Halm)을 통해 베토벤(L. v. Beethoven)과 슈베르트(F. Schubert) 등 명연주가들과 자주 만나며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그들로 인해 헬러의 음악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그는 쇼팽(F. Chopin)과 멘델스존(F. Mendelssohn)의 음악을 매우 좋아했다.

바베데트(H. Barbedette)는 “협주곡, 트리오, 그리고 마주르카를 제외하면, 헬러는 연습곡, 프렐류드, 소나타, 스케르초, 즉흥곡, 발라드, 녹턴, 왈츠, 타란텔라, 그리고 폴로테이즈에 이르기까지 쇼팽과 동일한 작품 장르를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3]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의 작품 중 ‘21개의 쇼팽의 곡을 모방한 특별 연습곡’ 「21 Technique Etudes to Prepare for the Execution of Works by Frederic Chopin」은 헬러가 쇼팽의 작품을 그대로 옮겨와 패턴 연습곡으로 다시 만든 것도 찾아볼 수가 있다. 이처럼 헬러의 작품은 쇼팽의 작품과 매우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헬러는 1830년 경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머무르면서 음악가로서 많은 경험을 쌓기 시작한다. 특히 로버츠 슈만(F. Schumann)의 음악 잡지인 “음악 신보(Neue Zeitschrift für Musik)”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평가 받길 원하였고, 그 중 몇몇 작품들은 슈만에게 전달되어지기도 하였다.[4] 헬러의 작품에 대한 슈만의 논평은 매우 열정적이었으며, 이는 당시 음악계와 대중들에게 작곡자 헬러의 명성을 확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 후 헬러는 독일에서 프랑스 파리로 거처를 옮기고, 남은 일생을 음악가로 활발한 활동을 한다. 특히 그는 프랑스 음악에 대한 공로로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훈장(Chevalier of the French Legion of Honor)을 수여받았으며, 1888년 1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세상을 떠난다.

헬러는 피아노를 위한 연습곡들을 대부분 작곡하였으며, 160여 곡이 넘는 작품들을 출판하였다. 그의 작품들은 단순히 손가락만을 훈련시켜 기교적인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낭만시대의 작곡가답게 음악적 표현이 아름답고, 때로는 소규모의 서정적인 시들로 비유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표현력이 강하고 색채가 풍성해 그의 작

품들은 슈만의 「어린이를 위한 앨범(Album for the Young)」과 자주 비견되기도 하였다.[5]

제콥슨(I. Jacobson)은 “헬러는 중급 학습자를 위한 피아노 에튀드 곡을 많이 작곡하였으며 그는 의도적으로 큰 형식의 작품들을 작곡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각 레벨의 난이도에서 무리하지 않고 연주할 수 있는 소규모 작품들을 작곡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6]고 보았다. 또한 음악에 있어서도 작은 손을 가진 학생들도 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는 연주자의 테크닉을 과시하는 것과 같은 작품들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관해 윌리엄 웨스트니(W. William)는 “헬러의 연습곡들에 관해 쇼팽이나 멘델스존과 같은 낭만 작품들의 연주 준비를 위한 탁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너무 난해하지 않은 테크닉을 구현하면서도 오히려 음악적으로 화려하고 유쾌한 작품성을 갖추고 있다.”[7]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헬러의 작품들은 중급과정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기초적인 피아노 테크닉 향상은 물론 연주회 곡으로 다루기에 충분한 음악적 작품성을 가지고 있다.

헬러의 첫 번째 작품은 다양한 형식을 탐구하는 가운데 자연스러운 매력을 지니고 있는 「표현의 예술(The Art of Phrasing) Op. 16」작품이며, 그의 작품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은 대부분 「선율적인 연습(Melodious Studies) Op. 45」에 포함되어져 있다. 이 외에 그는 많은 연습곡들을 작곡하였는데, Op. 16, 45, 46, 47, 90, 125와 작품 Op. 138에는 여러 개의 연습곡들이 포함되어져 있으며, Op. 96에는 한 개의 연습곡, Op. 116에는 두 개의 연습곡이 포함되어져 있다. 특히 그의 연습곡 중 Op. 45, 46, 47의 작품들은 중급과정 학습자들이 다루기에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기초적인 피아노 테크닉을 다지는 동시에 음악적 표현 능력을 키워 연주회용 레퍼토리로 활용하기에도 효과적인 작품들이다.

헬러의 피아노 연습곡 중 ‘진보적 멜로디를 위한 30개의 에튀드’ 「30Etudes melodeques et progressives Op. 46」와 ‘감성적 리듬을 위한 25개의 에튀드’ 「25Etudes pour former au sentiment du rythme et a l'expression Op. 47」는 피아노 테크닉 훈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헬러의 연습곡 중 Op. 45, 46, 47는 슈만의 「어린이 정경」과 멘델스존의 「무언가」에 비견될 만큼 개성이 넘치고 감

성적인 작품들로 음악적 흐름, 스케일, 트릴, 3도, 6도 등의 기본적인 피아노 테크닉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그의 작품들은 단순히 손가락만을 움직여 기교적인 연습에 목적을 두지 않고, 음악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의 작품을 만들고자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작품에 붙여 놓은 제목인데 사실 곡에 사용된 제목들은 헬러 자신이 직접 붙인 것은 아니고 편집자나 출판사가 작품마다 제목을 붙여 놓은 것으로 이러한 제목들이 작품을 더욱 묘사적이고 음악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곡의 분위기나 표현능력을 기를 수 있고, 상상력을 키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낭만시대 작품으로 중급과정 학습자들의 피아노 테크닉과 음악적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티븐 헬러의 피아노 연습곡들을 활용해 리듬과 발란스를 중심으로 피아노 테크닉에 관한 연습방법 및 교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헬러의 연습곡 중 Op. 125는 리듬에 관한 연습방법 및 학습요소를 포함시키고 있어 리듬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Op. 47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멜로디와 반주가 구분되어져 있어 선율적 테크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곡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듬과 발란스에 관한 연습방법 및 교수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스티븐 헬러의 피아노 연습곡 중 Op. 125와 Op. 47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은 스티븐 헬러의 피아노 연습곡에 관한 작품목록이다.

Table 1. Stephen Helle piano etudes

Op.	Etudes
Op.16	24Etudes ‘The Art of phrasing’
Op.29	Hunting
Op.45	25Etudes ‘Introduction to the art of phrasing’
Op.46	30Melodic and Progressive Etudes
Op.47	25Etudes to Form a Sense of Rhythm and Expression
Op.90	24New Etudes
Op.96	Grand Concert Etude
Op.116	2Etudes (1866)
Op.125	24New Etudes of Expression and Rhythm
Op.139	3Etudes
Op.151	2Etudes
Op.154	21Technique Etudes to Prepare for the Execution of Works by Frederic Chopin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스티븐 헬러의 피아노 연습곡을 활용해 중급과정 학습자들에게 자주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리듬과 발란스 중심으로 기초적인 피아노 테크닉 향상을 위한 연습방법 및 교수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연구하도록 한다.

2.1 리듬(Rhythm)

김홍인(2005) “리듬이란 한 음악의 박자와 빠르기 내에서 시간적으로 전개되는 음과 쉬의 규칙 혹은 불규칙적인 진행 형태이며, 음악 구성의 뼈대가 되고 토대가 되는 주요한 것이다. 또한 리듬은 음악의 진행에서 조절되고 선택되어 이끌어지며 화성선율과 함께 그 음악의 특징을 결정해 주는 주요 요소가 된다.”[8]고 하였다.

리듬이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반복되는 움직임을 이르는 말로 음악의 흐름을 질서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음악에는 다양한 리듬의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곡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리듬을 익혀 연주해야 한다. 또한 좋은 리듬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음의 길이가 길고 짧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곡가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곡의 형태와 전반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홍수(1990)는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에서 달크로즈(Dalcroze)는 “리듬이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의 기초이고 원동력이라고 하고 모든 리듬의 원천은 인간 신체에서 나오며 음악교육에서 몸의 동작을 통하여 음악적 체험을 하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9]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오르프(Orff)는 “리듬은 인간의 뛰는 심장과 같이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음악 학습의 기본은 리듬 학습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자연 발생적인 리듬은 언어와 율동과 음악에 모두 존재하는 요소로서 음악 학습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하는 요소이다.”[10]라고 하였다. 이처럼 리듬은 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적 요소이며, 특히 초·중급과정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는 리듬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며 더 나아가 음악에 대한 흥미와 표현력을 발달시켜주는데 효과가 있다.

다음은 스티븐 헬러의 피아노 연습곡 중 작품 Op. 125를 통해 중급과정 학습자들의 리듬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연습방법 및 교수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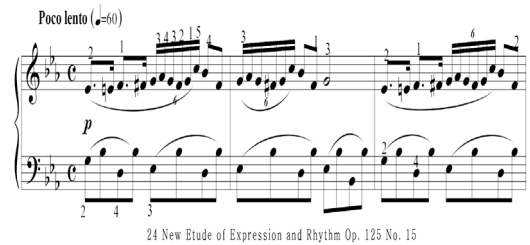


Fig. 1. 24New Etudes of Expression and Rhythm Op. 125 No. 15

Fig. 1은 헬러의 작품 중 ‘24개의 리듬과 표현에 대한 새로운 연습곡’ 「24New Etudes of Expression and Rhythm Op. 125 No. 15」 [11]으로 4분의 4박자로 이루어진 내림마장조의 곡으로 조금 느리게(Poco lento)연주하는 곡이다. 이 작품에서 왼손을 살펴보면 8분 음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왼손 1번 손가락의 경우에는 항상 ‘시’ 음을 소리 내고 있다. 반면 오른손의 경우에는 점 8분 음표, 16분 음표, 여섯 잇단음표, 8분 음표, 2분 음표로 다양한 리듬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달크로즈 교수법 중 유리드믹스(Eurythmics)를 활용해 연습방법을 제시해본다. 우선 4분 음표를 고정 박으로 손뼉치기

또는 건기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표현으로 고정 박을 기억하고, 8분 음표의 규칙적인 리듬패턴을 건반위에서 자연스럽게 연주될 수 있도록 한다. 오른손의 경우에는 다양한 리듬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붓점 리듬’과 ‘여섯 잇단음표 리듬’을 말 리듬으로 바꾸어 기억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붓점 리듬의 경우에는 ‘대~추’로 바꾸어서 말 리듬을 익혀보고, 여섯 잇단음표의 경우에는 ‘바나나바나나’로 바꾸어 말 리듬을 익힌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손과 왼손의 리듬을 익혔다면 오른손 선율이 생동감 있고, 음악적인 표현력을 가지고 연주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본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왼손이 일정한 박을 유지하고 오른손 리듬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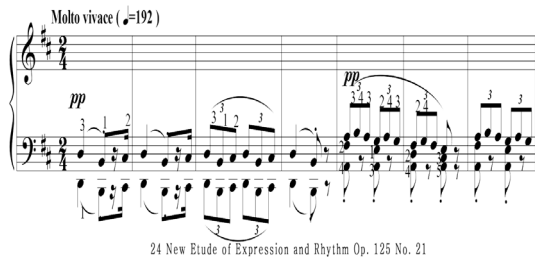


Fig. 2. 24New Etudes of Expression and Rhythm Op. 125 No. 21

Fig. 2는 스티븐 헬러의 작품 ‘24개의 리듬과 표현에 대한 새로운 연습곡’ 「24New Etudes of Expression and Rhythm Op. 125 No. 21」으로 4분의 2박자로 다양한 리듬을 사용하고 있는 곡으로 처음 4마디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볼 수 있으며, 오른손과 왼손이 리듬, 음정이 옥타브로 진행하면서 연주하도록 되어져 있다. 5마디부터는 오른손은 셋잇단음표로 멜로디를 연주하고, 왼손은 정박에 화음을 넣어 멜로디를 도와주는 반주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곡이다.

위의 곡은 2분할 바이너리(Binary)와 3분할 터너리(Ternary)로 이루어진 곡으로 각각의 리듬을 정확하게 연주해 주어야한다. 특히 한 박을 균등하게 2개, 3개로 쪼개어 정확한 리듬으로 연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메트로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고정박을 들으며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교수법에 활용한 신체표현이 가장 쉽게 습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박자 안에서 ‘밤’, ‘대추’,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말 리듬을 시창하고, 걷기, 신체터치하기 등 몸으로 리듬의 변화를 익혀보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 Fig. 2의 리듬을 말 리듬으로 바꾸어 연습해보고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노래 부를 수 있다면 건반위에서 정확한 리듬터치로 연주 될 수 있도록 한다.

2.2 발란스(Balance)

선율이란 음악을 구성하는 3대 요소 중 하나로 높이 나 길이가 다른 음의 연속적인 행진으로 각각의 음은 멜로디 노트(선율 음), 그 연속적인 흐름은 멜로디 라인(선율 선)이라고 한다. 선율은 하모니와 리듬이 서로 영향을 끼쳐 모양을 만들지만, 성악곡의 경우에는 가사의 영향을 받고, 기악곡의 경우에는 악기의 성능이나 음의 넓이에 지배된다.

피아노는 양손을 함께 연주하는 악기로 양손 소리의 밸런스(Balance)가 음악적 표현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작품에서 표현하고자하는 선율의 흐름과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하며, 프레이징 또는 음량의 변화에 따라 선율을 표현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피아노에서 나타나는 선율의 구조는 한손은 멜로디, 다른 한손은 반주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양손으로 나누어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멜로디가 연주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손의 균형을 잃지 않고 손 근육을 활용해 선율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피아노 테크닉이 필요하다.

초급과정의 경우 선율 표현이 대부분 오른손에 치우쳐 있고, 왼손은 주로 코드진행 혹은 단 선율로 이루어져 있지만 초급과정에서 손의 균형을 잡아 선율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연주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중급과정 학습자들의 경우에도 오른손에서 선율이 나오고, 왼손에서는 반주로 진행되는 곡들이 많아도 양손 소리의 밸런스를 맞추어 연주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중급과정의 경우 소리를 조절하다보면 너무 작거나 너무 크게 연주하게 되는데, 이것은 양손의 힘 조절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해 나타나는 피아노 테크닉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음은 헬러의 연습곡 중 작품 Op. 47를 통해 선율적 표현이 향상될 수 있는 피아노 테크닉에 관한 연습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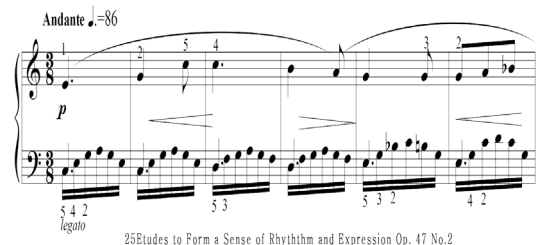


Fig. 3. 25Etudes to Form a Sense of Rhythm and Expression Op. 47 No. 2

Fig. 3에 제시한 악보는 스티븐 헬러의 작품 중 ‘25개의 리듬과 표현 감각을 위한 연습곡’ 「25 Etudes to Form a Sense of Rhythm and Expression Op. 47 No. 2」 [12]으로 선율을 표현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연습곡이며, 오른손에서는 멜로디를 표현하고 왼손에서는 반주로 진행되는 곡이다. 특히 이 작품은 왼손을 펼친 화음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첫 박에 나오는 점4분음표

가 마디 전체의 화음을 구성하는 기본음이라 할 수 있다. 첫 박에 나오는 점4분음표의 경우 연주할 때에 충분한 울림을 가지고 음의 길이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음들도 손가락의 힘을 고르게 분배하여 하나의 화음처럼 들릴 수 있도록 연주해야 한다.

오른손에 나오는 선율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음의 길이로 노래 부르며 건반을 깊게 눌러 소리 톤이 깊게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Fig. 3의 경우 처음 4마디를 하나의 프레이즈로 연결시켜 노래 불러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손끝의 힘을 조절해 소리의 음량을 살려주어야만 선율이 잘 표현될 수 있다. 특히 왼손의 반주와 오른손의 멜로디가 잘 표현되기 위해서는 소리의 밸런스가 잘 맞추어야 하며, 왼손의 경우 부드럽고 고른 소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손목을 낮추고 손가락을 약간 펼친 듯이 연주하되 손모양이 변형되지 않도록 포지션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이때에 손목에 힘이 들어가거나 많이 움직여 연주하게 되면 고른 소리를 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손목을 고정시키는 연습도 필요하다. 오른손 역시 부드럽고 아름다운 톤 칼라를 내기 위해서는 음과 음 사이를 연결시켜 연주할 수 있어야 하며 음의 진행에 있어서는 다음에 나올 소리를 손가락이 미리 준비해 주어야 하며 동시에 노래 부르는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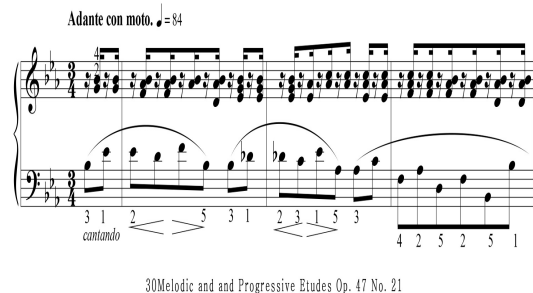


Fig. 4. 25 Etudes to Form a Sense of Rhythm and Expression Op.47 No.21

위에 제시한 Fig. 4는 스티븐 헬러의 작품 중 ‘25개의 리듬과 표현 감각을 위한 연습곡」 「25Etudes to Form a Sense of Rhythm and Expression Op. 47 No. 21」으로 왼손에 선율을 가지고 있으며 4분의 3박자의 못갓춘 마디로 시작하는 곡으로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교차되어 음이 진행되고 있다. 오른손의 경우에는 16분 음표와 16

분 음표가 교차로 나타나고 16분 음표의 길이가 너무 짧지 않게 연주해야 하며, 왼손의 경우에는 8분 음표의 음을 충분히 누르며 부드러운 레가토로 연결시켜 노래 부르고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왼손부분에 칸타토(cantando)라는 음악용어가 제시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노래하듯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레이즈에 관해 디힐러(J. Dichler)는 “멜로디 구성의 내적인 분절을 표현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모든 멜로디는 오직 하나의 생물과 같이 호흡하며 성장하고 발전한다.”[13]고 보았다.

Fig. 4 악보에 제시한 곡은 못갓춘마디 형식으로 노래의 처음시작을 약박으로 6개의 ‘8분 음표’를 하나의 프레이즈로 연주하고,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크레센도(Crescendo)와 데크레센도(decrescendo)의 악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해 음악적 표현까지 동시해 해주어야 한다. 특히 프레이즈가 끝나는 부분에서는 피아노 동작을 잠깐 멈추고 호흡과 함께 손목을 들어주는 동작을 함으로서 음악에서의 호흡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 주어야 한다.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낭만시대 작곡가 스티븐 헬러의 피아노 연습곡을 통해 중급과정 학습자들이 피아노 테크닉과 음악적 표현능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리듬과 선율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습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실 중급과정 학습자의 피아노 테크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리듬과 선율만으로는 작품을 음악적으로 완성시키기 매우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리듬과 선율 이외에 화성과 아티큘레이션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이 결합되어져 있어야 하며, 특히 곡의 빠르기나 쉼여림 등 다른 요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피아노 테크닉이 필요하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작품에서 요구되는 피아노 테크닉은 복합적인 형태이고 때로는 개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악보상의 다른 문제들로 인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다양한 피아노 테크닉을 익히고 있어야 하며, 특히 연주자에게 맞는 테크닉을 찾아 개발해 좋은 연주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듬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습방법으

로 스티븐 헬러의 작품 Op. 125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곡 전체의 흐름을 통해 고정 박을 기억하게하고 주어진 박자 안에서 리듬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한 박을 유지해야하며, 음악의 흐름이 규칙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습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박자 안에서 리듬을 세분화시켜 보았으며, 이러한 리듬을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몸으로 리듬을 기억하게 하는 달크로즈 교수법 등을 연습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발란스를 향상하기 위한 음악적 요소로 스티븐 헬러의 작품 Op. 47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피아노의 특성상 양손을 동시에 연주하기 때문에 멜로디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멜로디 소리가 반주하는 소리에 비해 소리 톤을 조금 더 울림을 가지고 깊이 있는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이때에 양손에 관한 소리의 밸런스를 위해서는 연주자의 청음훈련이 꼭 필요하며, 특히 연주자는 손의 힘 조절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아가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스티븐 헬러의 연습곡들은 아주 어렵지 않게 작곡되어있기 때문에 중급과정의 학습자들의 테크닉을 향상시키고 레퍼토리 곡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다. 또한 낭만시대의 쇼팽, 슈만, 브람스, 리스트 등 수준 높은 작품들을 다루기 전 예비단계에서 연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낭만시대 작곡가 스티븐 헬러의 작품 Op. 125와 Op. 47를 활용해 중급과정 학습자들의 리듬과 발란스 중심으로 피아노 테크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습방법 및 교수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자들의 작품들이 많이 연구되어 피아노를 학습하고 있는 학습자와 교사들에게 레퍼토리 선정에 있어 다양성을 제시해주고 더 나아가 기초적인 테크닉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1] Max W. Camp, *Developing piano performance, A Teaching Philosophy*, N. C: Hinshaw Music, Inc, 52, 1981.
- [2] Daniel. R. & Bowden. J, The intermediate piano stage: exploring teacher perspectives and insights. *British Journal of Music Education*, 30/2, 245, 2013.
DOI: <https://doi.org/10.1017/S0265051713000041>
- [3] Barbedette, H, *Stephen heller*. Paris. Eng. Trans. 1877/R1974 with an introduction by R. E. Booth, Detroit

Reprints in Music, pp. 79-82, 1876.

- [4] Biglerand, L.&Lloyd-Watts, V. *Suzuki teaching piano*, Seoul: Churchmusic, 1985.
- [5] Byun, Ji-hye, *Study of Expressive Piano Technique for Intermediate students -Focusing on 「25 Etudes Introduction a l'art du phrase Op. 45」 by S. Heller-*, M. A, Ewha Womans University, 2012.
- [6] Clarfield. Ingrid Jacobson, *41 Piano Studies Selected for Technique and Musicality*, O Se jip(Tr.), Seoul:
- [7] Westney. W, *Performance Notes To Stephen Heller's Selected Studies, Opus 45 and 46*, N. Y: G. Schirmer, pp. 5-8, 2005.
- [8] Kim Hung In, *Fundamentals of Music Theory*, Seoul: Joongangart, 2005.
- [9] Lee Hong su, *Surrent approach of music education*. Seoul: Sekwang, 1990.
- [10] Beom Yeong Suk, *Piano Pedagogy with a commentary*. Seoul: Samhomusic, 2005.
- [11] Heller. S, *24Etudes d'Expression et de Rhythme*, Op. 125, Breitkopf und Härtel, 1869.
- [12] Heller. S, *Twenty-Five Studies for Developing a Sense for Musical Rhythm and Expression*, Op. 47. N. Y: G. Schirmer, 1894.
- [13] Daniel. J, *Verstand und Gefühl*, Wien-Munchen: Ludwig Doblinger, p. 169, 1965.

임 주 희(Ju-Hee Lim)

[정회원]



- 1989년 2월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음악작곡학사)
- 1995년 8월 : USC(University of California) 음악대학 재즈학과 (재즈작곡석사, 재즈피아노석사)
- 1996년 3월 ~ 1999년 2월 : 명지대 실용음악과 교수
- 1999년 3월 ~ 2004년 2월 : 동아방송대 영상음악과 교수
- 1999년 3월 ~ 현재 : 영화음악 “친구” “아나키스트” “어린신부” “댄서의 순정” “바람의 피이터” “울학교 이터” “아카시아” “기생령” 등 다수 자곡
- 2013년 3월 ~ 현재 : 서원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교육, 실용음악작곡